

시행 3년 마을변호사 '절반의 성공'

재능기부로 무변론 법률 지원...3년만에 상담건수 3배 늘어 인터넷 상담 노령층 접근성 떨어지고 강제성 없는건 '숙제'

함평의 A씨는 형 소주의 임야 8000평이 경매로 나오자 이를 낙찰받아 조지로 형질 변경했다. 하지만 이 중 200평을 오래전부터 경계 밖 갑나무 농장주가 점유하고 있어 이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얼굴을 붉혔다.

B씨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갑나무 때문에 이웃과 다투었다. 이웃이 갑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왔으며 제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웃 간 갈등에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마을변호사'였다. A씨에게는 소송 대신 조정, B씨에게는 갑나무 가지를 쳐내기보다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지역주민 갈등 해결에 제 몫을 하고 있다.

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시골마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가 없는 마을(無辯村)에 전담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먼 거리에서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종의 변호사 재능기부 서비스로, 대한변협·법무부·행정자치부가 함께 손을 잡았다.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면·동에 마을변호사 배정은 2572건이다. 시행 첫해 415건과 비교하면 6배이상 늘었다. 이 중 전남지역에는 294건이 배정됐다.

마을변호사 수는 올해 1523명으로, 전체 개업변호사 1만7885명의 8.3%에 해당한다.

상담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변협에 접수된 법률상담카드(전화, 팩스,

좋지 않은데다 주민들도 인터넷과 동떨어진 노령층이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간적 제약도 크다. 신안의 한 섬 마을변호사가 서울에 있다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도 부실하다. 배정된 마을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 실제 한 변호사는 "마을변호사로 이름을 걸었지만 작년 한해동안 특별히 자문 요청도 없었고 실제 활동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무보수 재능기부 형태이다보니 강제성이 떨어진다. 지적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광주변호사회 목포지회,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다. 분기에 한번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다.

목포지역 변호사들과 의기투합해 인터넷·전화 상담이 아닌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안이다. 지난 31일 섬소리법정이 첫 사례가 됐다. 비극면 마을변호사인 문준석 변호사가 법을 상담을 맡았다. 문 변호사는 이날 7건의 상담을 했다. 땅 분쟁이 많았다.

김국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은 "시골이어도 분쟁은 있다. 갈등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법정이 열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마을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지역주민들 가까이 있으면 해결된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기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암요금소 하이패스 설치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주) 관계자들이 1일 서구 풍암동과 남구 진월동을 연결하는 송암요금소에 하이패스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시는 송암요금소와 유역요금소는 오는 7월 1일, 소태요금소는 9월 10일부터 하이패스가 설치돼 개통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2, 달뜨기 03:07, 달지기 16:20

따가운 햇볕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6/30
목포	맑음	17/26
여수	맑음	17/25
나주	맑음	14/30
완도	맑음	16/26
구례	맑음	13/30
강진	맑음	15/27
해남	맑음	14/27
장성	맑음	14/29
보성	맑음	13/26
순천	맑음	16/29
영광	맑음	15/28
진도	맑음	14/26
전주	맑음	17/29
군산	맑음	17/26
원산	맑음	15/28
홍산도	맑음	16/2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날씨	기온
서해	안바다	북동~동 0.5
남부	안바다	북동~동 0.5~1.5
남해	안바다(동)	북동~동 1.5~3.0
서부	안바다(서)	북동~동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6/29	구름	16/29
18/24	구름	18/24
17/31	구름	17/31
17/31	구름	17/31
17/30	구름	17/30
18/30	구름	18/30
18/29	구름	18/29

1950년 광주 산동교 전투를 아시나요

보훈청 8일 동림동 재현 행사

“산동교 전투를 아시나요.”
광주지방보훈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 앞 공원에서 ‘1950, 광주의 그날’이라는 이름의 제1회 산동교 재현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산동교는 광주 유일의 6·25전쟁 전적지. 1950년 7월23일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병력규모가 1개 대대에 불과했던 우리 방어군은 군, 경찰, 학도병 등으로 구성됐으며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북한군에 끝까지 맞서 저항했다.

씨가 나서 긴박했던 전투 상황을 증언한다. 또 전문연극 배우들의 재현극을 통해 그간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산동교의 아픈 역사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OX 퀴즈대회, 6·25의복체험, 무기전시 행사도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 관계자,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행사 1부에 마련된 기념행사 시간에는 6·25전쟁 당시 산동교 전투 작전에 참전했던 조귀보(86·당시 경찰 경위) /김형호기자 khh@

함평·신안·곡성·구례 교육청 통·폐합되나

교육부, 학생수 3천명 미만 추진...전남교육청 “논의 필요”

교육부가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역 교육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1일 학생 수 감소세로 인해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에서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함평 ▲신안 ▲곡성 ▲구례 등 4곳이다.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한다. 전남에는 보

전남 소규모 교육지원청 현황

교육지원청명	인구수 ('16.3.31기준)	학생수 ('16.3.31인구통계)	교원수 ('15.4.1)	지방공무원 정원 ('15.12.31)	지방공무원1인당 학생수	지방공무원1인당 교원수
함평교육지원청	34,679	2,849	434	35	81.4	12.4
신안교육지원청	43,214	2,772	493	43	64.5	11.5
곡성교육지원청	30,637	2,574	316	35	73.5	9.0
구례교육지원청	27,276	2,563	302	34	75.4	8.9

※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이하·연속 3년·전국 25개

두 22개 지역 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는가 하면, 교육지원청 폐지 지역에는 가정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 행정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다. 섬 지역이 많은 신안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역간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서 빚어지는 행정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계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교조 광주지부장 해직

정성홍 전교조직업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오전 동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9명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거쳐 표결로 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정 지부장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수능 모의평가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2일 실시된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치러진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2049개 고등학교와 413개 학원 등에서 모의평가를 치른다.

이번 모의평가는 본 수능의 출제 방향,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는데다,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역별 응시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2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